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끝자락 토곡산 기슭에 자리잡은 절! 기도엄청도량 영암사는 중생의 너지려운 마음속에 한줄기 빛으로 서 있다.

마을 중심부에 자리한 토곡산과 오공산, 천태산, 가파른 각도로 일어난 봉우리를, 배내천, 영포천, 원동천의 맑은 물은 깊고 먼 근원에서 밤낮을 쉬지않고 남으로 흘러 낙동강과 합류한다. 뒤로는 명산 지락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물빛 파란 낙동강이 굽이치는 아름다운 고장, 배산임수, 자연환경을 갖춘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재리 토곡산 기슭에 영암사가 자리해 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수행과 포교에 정진해 온 대월스님이 현몽을 하고 절을 세웠다네. 모두들 도시로 향하는 시절에 토곡산 가파르고 깊은 산중에 터를 두고 주춧돌을 세운 까닭은 무엇일까? 일상이라는 불을 벗어나 순간순간 새롭게 거듭나려는 스님의 포하나의 시작, 영암사를 사찰순례에서 만나본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재리,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마을이다. 옛부터 가을을 모르고 농사를 지었기에 혼혼한 정이 남아있는 고장이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를 타고 6시간쯤 달려 양산IC로 들어서서 구포와 삼랑진 방향으로 차를 돌려 조금 달리다보면 풀금읍 안내표지판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 2차선 국도가 펼쳐지는데, 읍내를 지나 20여분 달리다보면 오공산 능선이 일어서는 산골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오공산을 휘감고 도는 푸



▶ 영암사 전경
른빛 일렁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달리다 보면 영암사 1.8km라고 쓰여진 입간판, 이곳이 바로 영암사가 자리한 화재리 매화마을이다.

신라말의 대학자요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전국 각지를 유랑할 때, 이곳 화재리에 머물러 산수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었다.

안개달린 산 첩첩하고 강은 끝없이 이어지니
강빛 맑은 마을에서 푸른 봉우리 대하는구나
외로운 배 바람따라 어디로 가는가

"별연히 날아가는 새 발자취가 없구나" 최치원의 '임경대'란 시처럼 화재리는 병풍처럼 둘러있는 푸른 첩첩산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강한 영남사투리의 손모들이 향토를 경작하는 마을, 푸른 하늘과 따가운 햇살이 바래가는 뱃길을 대신해 지평을 삼아도 풍요만큼 푸른 한 시골마을이다.

토곡산의 드높은 기암과 청정도량을 상징하는 계곡물은 영암사를 기도도량으로 만드는 원천이 되고, 혼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영암사를 지키는 스님과 불자들, 그 뜨거운 믿음으로 일체 공덕을 갖추고 토곡산 영암사는 중생의 어지러운 마음속에 한줄기 빛으로 서 있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 일주문에는 두타행 벽화가 걸린 이 절정케하고 ...」

사람사이의 정이 혼혼하게 살아있는 화재리 매화마을, 영암사는 그렇게 농촌 한가운데 밤부들 삶 속에 중지를 틀었다.
매화마을에서 토곡산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오르면 영암사 일주문에 다다른다. 일주문을 받치고 있는 양쪽 벽에는 출가 정신을 일깨우는 남방스님의 두

타행 모습이 벽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바루를 들고 한줄로 늘어선 탁발을 하는 자못한 가사의 스님들, 일곱발을 들며 탁발을 했던 걸식은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수행자의 본분이었다. 합장하지 않아도 고개가 숙여지는 풍경이다.
돌려봐도 반듯한 땅 한평 찾을 수 있는 가파른 산

중턱, 스님은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이런 곳에 절을 세우게 된 것일까?
경남 고성 옥천사에서 천일동안 관음기도 중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대월스님, 천일기도를 회향한 후에 다시 꿈 속에서 백의(白衣)관음을 현몽하고 영암사를 창건했다.

천일 관음 기도중 백의의 관음을 현몽으로 천견하고 꿈속에서 본 자리에 청정도량불사를 결정!!

대월스님은 토곡산 지금의 영암사 자리를 보고 이곳이 바로 꿈속에서 본 자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곳 토곡산 일대는 골짜기 이름이 암자골, 풀굴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암자가 있었다고 했다. 해방전에 남아있는 암자들은 모두 소실되고, 마을 사람들은 골짜기 바위 밑에 향이며 초를 올려놓고 치성을 드리는 정도였다. 스님은 단박에 이곳에 절을 짓겠다고 발원했다. 1992년 6월 스님은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출렁이같은 골짜기에 집을 짓는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스님 결사에 절실함을 돕고있는 거사를 비롯해서 신도들 모두가 스님이 부산 녹아원에서 편안히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은 한결 같았다. 도심 한복판에 절을 짓는 일도 쉽지 않은데 더구나 산 중턱에 절을 짓는다는 일이 그리 만만하겠는가.

불심으로 마음을 열어준 마을사람들의 동참으로 불사의 첫난관을 극복하며...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도 스님의 지극 정성에 감동하여 뜻을 따라 주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불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또한 마을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농부에게 있어 땅은 삶의 터전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그들 삶의 일부다. 그런 땅을 조금씩 거둬들이고 길을 넓히기까지는 돈보다는 더 큰 원력과 기도가 절실했을 것이다.

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길때면 관세음보살님께 의탁하고 기도를 올렸던 스님, 수미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혼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부처님의 도량을 일궈냈다.

공사에 착수한지 2년만에 금당과 삼성각, 요사채가 완성되었다. 땅을 사들이고 법적인 절차를 마친뒤 절이 세워지기까지 4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어렵게 이뤄낸 불사였다.

낙성식을 봉행하면서 자리에 동참한 스님과 불자들은 환희심에 젖었다.
신도의 회합소임을 맡고 있는 주원각성 불자, 마치

어둠과 긴 터널을 통과한 끝에 밝은 보살과 마주한 느낌이었다. 스님과 신도들, 마을사람들까지도 한마음이 되어 기쁨을 나누었다. 마을사람들도 도움이 있었기에 불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던 영암사. 영암사 터를 닦고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4년이란 시간은 영암사와 마을사람들 사이를 가깝고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다.

「신도회장과 마을사람들은 신·구·의 삼업을 살피는 도량을 원원하며 불사에 전념했다.」

더없이 맑고 깨끗한 산문의 중심에서 세속의 번뇌를 끊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사찰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토곡산 높은 곳에 절을 세우고 그 일구에 삼선대를 세웠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삼선대'란 글씨는 영암사가 신·구·의(興口興) 삼업을 살피는 도량으로 자리하기를 바라는 스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옛사람들의 불심이 이기되어 얇은 바위에 새겨진 신·구·의 삼업을 상징하는 삼선대, 온갖 짐작과 타성의 짐에서 미련없이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출가 정신을 잊지 않으려는 스님의 의지는 삼선대와 일주문 벽화, 그리고 절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스님이 영암사에서 기도 정진하고 있던 중 부산에 살고 있는 어느 눈먼 학생이 찾아왔다.

이 학생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이 때부터 스님은 눈이 보이지 않아 고생하는 불자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오직 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극 정성의 기도 때문이었는지 학생의 눈이 띄어졌고 부처님의 가피에 스님은 눈물을 흘리었다.



영암사를 청정기도 영험도량으로 만들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1053목불의 영험력!!

기도할때는 오직 한 생각으로 움직일 없는 부동자 세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마치 다 죽어가는 외아들을 의사에게 맡기고 때달리는 심경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오직 한 생각에 몰두할 수 있을때, 두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때 믿음도 생황도 견고해진다고 믿는 스님의 실천 철학을 행으로 옮긴 것이다.

영암사 경내로 들어서면 토곡산 깊은 골짜기 지하 암반에서 끌어올린 갈로수가 청량한 기운을 내뿜는다. 맑게 피어나는 언뜻은 영암사의 가람구조를 상징한다. 연일처럼 펼쳐진 요사채가 법당 주변을 감싸고 있다. 법당은 언뜻을 상징한다. 영암사 가람구조를 연쪽으로 구상한 배경은 허망하고 그릇된 중생심을 지혜롭고 밝은 마음으로 바꾸려는 스님의 견고하고 자상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법당 안에는 법신 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 그 좌우에는 약사여래 부처님 천불을 옥으로 조성해 놓았다. 대월스님의 말처럼 옥의 신비와 약사여래 원력을 통하여 병으로 고생하는 못 중생들에게 가피를 전해주는지 모른다.

법당을 나와 오른쪽으로 보면 용왕전이 보셔져 있다. 절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용왕기도를 올렸던 터가 있었는데, 바로 스님이 꿈속에서 백의의 관세음보살에게 축원카드를 건넰만한 곳이었다. 절을 세울 때 그 자리에 용왕전을 모셨다. 일찍부터 토곡산 정상에 솟아있는 문바위란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마다 가우재를 지내온 전통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용왕기도는 이곳 마을사람들에게 영험과 믿음을 전해준다. 농사짓는 일에 생계를 기대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에게 치성을 드려 자연의 섭리를 순조롭게 하려는 것은 어쩌면 이 지역만의 독특한 신앙행태인지도 모른다. 불교가 처음 우리 나라에 전래했을 때 우리의 토속신앙까지 계산을 수 있었던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이곳 영암사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용왕전을 돌아 법당뒤로 삼성각과 약사여래 입상이 서 있고, 도량 곳곳에는 스님이 손수 가꾸고 조성한 본재가 화단을 장식하고 있다.

토곡산 속의 영암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인운향이 느껴지는 옥의 기운은 법당을 찾는 불자들의 마음을 한층 환희심하게 하고 기도의 영험을 높여준다.



영험과 가피!! 기도 수행 불자들의 체험

(주원각성 불자)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옥부처님의 영험담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 농사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영암사를 찾는 할머니들도 절을 한번도 못갈 정도로 몸이 아팠다가도 옥불전 서면 108배, 1000배도 거느려 해내곤 한다. 옥으로 조성한 약사여래 부처님이 천불 모셔진 법당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영험도 있다고 한다.

(임강수 할머니)
옥에 어떤 기운이 스며 있기에 임강수 불자의 기도가 현실로 다가온 것일까. 마을주민과 영암사를 찾는 불자들은 기도공덕을 옥으로 조성한 부처님과 대월스님에게 물린다. 자신이 마음먹은대로 일이 수순하게 풀릴 수 있다면 기도에 힘이 붙고 믿음도 배로 커지길 바란다. 그런 믿음으로 불자들은 오늘도 영암사를 찾아 철야로 관음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전무량 불자)
영암사 신도회에서 총무소임을 맡고있는 전무량 불자, 관음주머니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고 믿고 있다. 부산에서, 혹은 더 먼 곳에서 불편한 교통을 감내하여 이곳 영암사를 찾는 불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스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처로서 영암사가 담당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님은 불자들에게 기도하는 방편을 알려주고 불자들이 함께 기도한다. 불자와 스님의 두 마음이 일치됐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까닭이다.

(권옥희 불자)
마을에 장애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괴로움이 있을리 없다.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먼길도 마다않고 영암사를 찾는 권옥희 불자, 영암사를 감싸고 있는 토곡산 산세는 마치 용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험을 갖추고 있다. 사계가 뚜렷하고 계곡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청정만 도량, 여기에서 영암사가 자랑하는 갈로수에 목을 축이고 나면 생활에 찌든 몸과 마음이 맑금히 씻겨가는 느낌이다. 우리에게 보리심을 일어서게 하고 깨우침을 주는 선지식은 비단 부처님과 조사뿐이 아닐 것이다. 청정한 한 그루의 나무일수도 있고, 맑은 바람일수도 있고, 연못의 연꽃일 수도 있다.



◀ 용왕당



▶ 대월 주지스님

"영암사가 위치한 토곡산은 아래편이 머물러 수행했던 산입니다. 이전 이성계가 남해 보리암에서 기도하고 가던중 이곳 절경에 취

해 하루를 쉬어 갔었습니다" 기도도량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귀의처가 되고 있는 영암사, 대월 주지스님의 불가여, 귀의 한 뜻은 남달랐다. 개인적인 성불보다는 많은 중생들이 업장소멸하고 기도정진에서 성불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영암사에서 수행에 전념한 것이다.
영암사는 대월스님의 굳은 서원결심로 지정영험도량으로써 많은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대월스님의 끊임없는 기도정진은 부처님 사리탑 건립 불사로 이루어진다.
"영암사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남방에서 8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15과나 되지요. 이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사리탑 건립 발원을 했습니다."
적광전 좌측산 위치에 내년 초파일 이전까지 조성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대월스님의 끊임없는 정진 속에 토곡사에 위치한 영암사는 앞으로도 고통받는 많은 중생들의 소중한 귀의처로 남을 것이다.

▶ 영암사 기도처 안내 ☎ 0523) 387-7227~8

▶ 서울및 인근지역출발
경부고속도로 양산 IC에서 빠져나와 풀금읍 소재지에 오면 밀양, 삼랑진방면 지방국도 1022호 외길 하나가 나온다. 10분정도 진행하면 원동면화재 마을앞에 이르러지며, 길가 우측에 영암사 사찰 안내판의 방향에 따라 마을로 들어서면 된다.

▶ 부산및 인근지역출발
구포 및 사상 방면에서 지하철 호포역 종점에서 내려 양산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 원동면 시외버스를 타고 화재리 하차, 외하 내하 마을 찾으면 되며, 버스2시간 간격 요금은 800원

▶ 서부경남 호남지역출발
남해안 고속도로 풀금읍 소재지 국도 타고 밀양, 삼랑진 방면으로 10KM쯤 오면 원동면 화재마을에 도착되며 도로에 영암사 안내 표지판을 따라 마을로 들어 오면 됨

▶ 주소 :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재리 184-8

